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스번의 마이클 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 및 내셔널 리더 수양회 제 1강 모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의 메시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메시지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수양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채우사 당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1:8).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10,11)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타협치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울 것을 명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빙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7-30).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 의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며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이 바울을 가르침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1.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1-14)

(1-4) 1 절을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핍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과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좋은 일에는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는 할 힘이 넘쳤습니다. 삶을 개선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최악된 본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격려와 위안으로 충만해졌고 우리의 죄가 초래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가 주어졌고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 축복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을 더욱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4b)”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성장해야 함을 내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 성장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문이며 일부 특별한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2절은 1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성장을 해야 합니다.

3 절과 4 절을보십시오.

아무 일에도 자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도록 성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도록 성장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다툼(야심)이나 허영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다툼(야심)은 자기 영광을 위해 권력이나 명예 혹은 인정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욕구입니다.

허영이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툼(야심)과 허영은 자기 중심적이며 본질상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6b).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인 다툼(야심) 혹은 허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할 경우,

또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거나

우리가 항상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혹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즐긴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점에 근거하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품기까지 성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 중심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적대적인 세상으로 어찌하든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 자신들의 일을 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품기까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배려해야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것이 충족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사랑을 품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질 때 교회에는 분열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초기 성도들은 반사회적, 불충, 비도덕한 것으로 애매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켜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했을까요?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놀라움을 자신들의 기록에 표현하였습니다.

“보라 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지를!”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연합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는 마귀가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1.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희망 (5-11)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 중심적인 마음을 품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방향을 주신 후에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적 마음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두 동일합니다.

6-8 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적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 죄인을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들의 일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영광, 권세 그리고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되는 일을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밟히고 학대당하고 마침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왕의 왕 주의 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겸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겸손, 종의 성김 그리고 순종을 통해 그를 지극히 높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내면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행복하고 열매 맺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세상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성장을 원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한 삶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파트에서 그 답은 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에 그 분을 영접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우리는 겸손의 삶, 다른 사람 중심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요약과 예 (12-30)

12절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룰 때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실상 이 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7-1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듭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성기기 위해 매일 죽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그는 자신의 삶을 관제로 비유했고 그들의 믿음의 봉사 위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위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을 걱정했고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마침내 죽기까지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을 때 기뻐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본을 따라 자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9-3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곧 그들에게 보내길 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일만 돌보았지 예수님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플 때조차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병든 것에 대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존귀히 여겼으며 이들에게 복음 역사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덧입고 그에게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할 때  
결코 어리석지 않고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구원과 모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타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세리 레위와 같았고  
세상적인 성취와 부를 얻는 것이 멋진 인생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으로 모든 것을 했을 때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란과 포르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를 추구하여 학문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신체적으로는 피부병으로 고생했고  
영적으로는 염려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콩 UBF에서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 제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저는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과 제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했고 홍콩 UBF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캠퍼스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채워 캠퍼스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게 되었으며  
이들을 성경 선생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캐롤 선교사와 가정교회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니엘과 에녹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부병을 치료하셨고 어려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PhD를 받게 하셨습니다.  
2014년에 제 동역자 캐롤은 호주 브리스번의 퀸즈랜드 공과대학교 (QUT)의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하이 테크 회사의 선임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을 사직했고 저의 가족은 QUT 캠퍼스 역사를 섬기기 위해 브리스번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양도 없었습니다. 매주 피싱을 나갔는데도 말이죠.  
저는 종종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브리스번으로 온 결정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12:1b와 2절이 부딪혀 왔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자신의 한심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매주 주일 가족들을 즐겁게 먹일 수 있는 말씀과  
QUT 캠퍼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주셨고 이후 학생 양들이 오기 시작했습니  
다.

2016년에 캐롤 선교사의 수퍼바이저는 캐롤이 매우 열심히 일했는데도  
2년 동안의 연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롤이 그해 연말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않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캐롤 선교사가 교수 직장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었지만  
평화의 복음으로 저는 자신의 이기심과 영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다른 호주 선교사들과 동역하여 QUT에서 최초로 바이블 아카데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QUT 학생들과 다른 UBF 캠퍼의 동역자들을 포함하여 15명의 참석자들을 가졌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후에 하나님은 캐롤 선교사의 수퍼바이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평가가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뀌게 하셨으며 캐롤을 부교수로 승진케 하셨습니다.

작년에 COVID 대유행병으로 인해 오랜 캠퍼스 봉쇄 기간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박다윗 사라 선교사 가족들과의 동역을 통해 우리의 양들과 주일 예배 참석자들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깊이 체험한 것은 우리가 이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까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자 하는 믿음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우리의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덧입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 거스리는 세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저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장케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요 희망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게 도와시고

흠없고 순전하며 열매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 거스리는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